



메리츠증권 정중환광주지점장은 삼성정밀화학과 큐에스아이를 추천했다. 정 지점장은 삼성정밀화학의 경우 원유 및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른 원가압력 완화와 이에따른 이익회복이 기대되고 전자소재사업부분의 신규사업이 올해 상반기중에 가시

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큐에스아이는 대중화 초기의 레이저다이오드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해 향후 시장 성장에 따른 수요가 예상되고 최근 외국인인 의미가 있는 매수에 나서 주목할 만하다고 추천이유를 밝혔다.

전자소재 생산으로 사업 다각화

기술력·시장 지배력 '독보적'

■ 삼성정밀화학

요소와 암모니아 등 일반화학 제품과 기능성 중간소재인 정밀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일반화학과 정밀화학 제품의 매출비중은 3대 1 정도다. 국내에서는 한화·바스프·남해화학·다우케미칼 등과 경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 부문에서 시장 점유율이 50~60% 정도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화학산업의 경기부진에 따른 성장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사업다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화학제품 중심에서 전자재료업체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이윤순 대표는 지난해까지 3.4%에 그쳤던 전자재료 사업부문의 매출비중을 오는 2010년까지 35%로 끌어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사업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LCD용 광학필름인 프리즘시트와 커넥터, LED 등 특수전기전자재료 소재인 액정폴리머(LCP)를 올해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LCD편광판에서 손실되는 빛을 재활



용해 휘도를 높여주는 고휘도필름과 고해상도 프린터 토너, 기타 광학필름까지 출시한다. 고휘도필름은 현재 국내업체가 시장을 급속하게 파고드는 프리즘시트와 달리 3M사가 여전히 독점해온 고휘도 프리즘시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 연간 8억달러의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삼성SDI 등 계열사를 든든한 거래처로 두고있는 점과 10%대의 부채비율 등 탄탄한 재무구조도 강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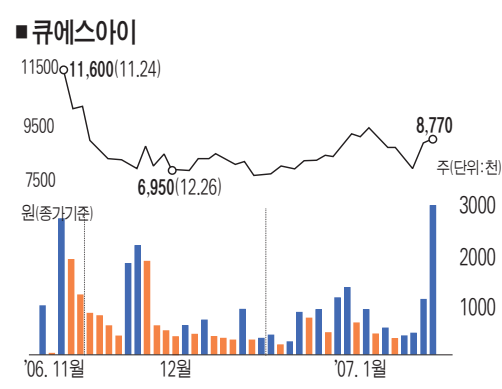
■ 큐에스아이

2000년 설립돼 지난해 11월 24일 코스닥에 상장한 업체. 레이저프린터, 레이저스캐너, 레이저포인터 및 레이저계측기 등에 들어가는 레이저다이오드를 전문적으로 생산한다.

LD(레이저다이오드)는 LED(발광다이오드)와 광반도체 소자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빛은 구현효과가 탁월해 기존 광통신부품 영역을 넘어 첨단 멀티미디어 디지털가전에서부터 자동차, 항공산업 등까지 활용도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 업체의 경쟁력은 크게 네가지, ▲무명의 중소기업이지만 세계 굴지의 기업에 핵심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점 ▲기술력과 시장지배력이 독보적이란 점 ▲사업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점 ▲LD가 차세대 디스플레이나 DVD 등 많은 제품과 산업에 적용돼 외압과 효능을 고도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란 점을 꼽고 있다.

주요 거래처로는 바코드 스캐너분야의 블랙앤드레더, 레이저빔 프린터분야의 제록스, 레이저거리측정분야의 레이가 등이 있다. 일본 후지제



록스와는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오는 3월부터 핵심부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LG전자와는 고난도 차세대 기술인 청색 레이저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에 앞서 시장 2개월밖에 안된 새내기주로 적정주가를 평가받는 과잉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 업체는 거래 첫날 공모가(6천800원)의 2배에서 거래된 뒤 지난해 말 공모가 수준까지 하락한 후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對中 흑자 5년만에 감소 對日 적자는 사상 최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자 무역 흑자국인 중국에 대한 무역흑자가 지난해 5년만에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고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8일 산업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무역흑자는 209억6천700만달러로 전년보다 9.9% 줄어 2001년 이후 처음 감소세를 보였다. 대(對)중국 무역흑자는 2000년 56억6천만달러에서 2001년 48억9천만달러로 떨어진 이후 2002년 63억5천만달러, 2003년 132억달러, 2004년 201억8천만달러, 2005년 232억7천만달러 등 4년 연속 증가세였다.

대중 무역흑자의 축소는 중국이 철강과 석유화학 등 기초소재 분야에 대해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면서 수입 수요가 줄어들게 가장 큰 원인이어서 감소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중국에 이은 우리의 무역흑자국은 홍콩(168억8천300만달러), 미국(95억7천400만달러), 멕시코(55억500만달러), 대만(37억2천700만달러) 등 순이다.

지난해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는 253억3천100만달러로 전년보다 3.9% 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002년까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이었던 미국은 2003년 중국시장에 1위를 내줬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17.7%, 2004년 16.9%, 2005년 14.5%, 2006년 13.3% 등으로 떨어지고 있다. 부진한 대미 수출 증가세와 더불어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는 95억7천400만달러로 3년만에 다시 100억 달러를 밑돌며 하락세를 이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28일 한강시민공원 독섬지구에서 아름다운가게 주최로 열린 '2007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행사에서 손숙 공동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떡을 자르고 있다. 주최측은 전국의 아름다운가게 수익금과 기업 후원으로 마련한 생필품 보따리 2천700개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전국 소외계층 가정에 직접 전달한다. /연합뉴스

주택담보대출 DTI

〈총부채상환비율〉

신용·소득별 차등

앞으로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신용등급과 소득 수준 등 개인의 현재 뿐 아니라 미래의 현금흐름에 따라 대출한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주택가격에 따라라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차등 적용하고 자영업자와 사회 초년병 등 소득입증이 어려운 계층은 대출한도를 정할 때 별도의 소득 기준을 적용할 전망이다.

28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은행들로부터 이런 내용의 DTI 적용안을 제출받아 최종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고객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DTI를 40~60% 범위에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TF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량등급의 고객에게는 DTI 한

도를 높게, 그렇지 않은 고객은 낮게 적용하는 방안이다.

국민은행의 신용평가 등급에 각종 공적소득 증빙, 직업등급, 고액등급 등이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수준이 낮거나 거래행태가 불량한 경우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방안은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한도를 차등화한다는 금융원의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최종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가격에 따라 DTI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으며 현재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투기 및 비투기지역의 시가 6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 상환능력 등을 감안해 DTI 50~60%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화폐 초상에 여성 나올까

'양성평등 고려' 법안 제출

한국은행권 화폐의 인물 초상에 여성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돼 양성평등 차원에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은 28일 재정경제부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새로 발행할 한국은행권의 배경도안을 인물초상으로 정할 경우 남녀의 비율을 고려해 결정토록 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실제로 고액권 발행에 반대 입장을 견지했던 재정경제부가 최근 들어 "국회에서 여아가 합의하면 발행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전향적 자세로 돌아선 가운데 제출된 것이어서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10만원권을 발행할 경우 자체 여론조사에서 세종대왕 다음으로 높은 지지율을 얻은 김구 선생을 인물 도안으로 적용하고, 5만원권의 경우 여성이나 과학계 인물을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인사로는 신사임당과 유관순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와관련, 지난 2004년 17대 국회의원 여성 당선자 38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 조사에서는 유관순 열사가 40.6%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고, 신사임당(18.7%), 섣달여왕(12.5%), 여성계의 대모격이었던 정대철 전 의원의 모친 고(故) 이태영 박사(12.5%) 순으로 나타난 바 있다.

해외의 사례로는 일본에서 여류 소설가인 히구치 이치요(樋口一葉)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처음으로 2004년 11월 새 5천엔권의 여성화폐 모델로 등장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연합뉴스

10대그룹 총수 1,100억원 넘어 주식 보유 미성년자들

'미성년자 주식부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10대그룹 총수집안 미성년자들의 주식 보유 규모가 1천100억원을 넘어섰다. 28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실물거래소에 따르면 26일 기준 10대그룹 계열사들의 최대주주 친인척 중에서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1989년 1월 이후 태어난 만 19세 미만)는 총 15명이며 이들의 주식 보유액은 모두 1천111억9천100원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 주식 보유자가 있는 10대그룹 계열은 한화, LG, LG상사, GS 등 4곳으로, 최근 1년간 한화와 GS의 주가 상승으로 이들의 보유액도 늘어났다.

LG그룹에서는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4남인 구분식 회생전자 사장의 장남인 웅모(17)씨도 LG 주식 70만6천190주(202억6천765만원)와 LG상사 10만1천973주(22억2천301만원) 등 225억원 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어 구분준 LG상사 대표이사 부회장의 장녀인 연제(16)씨는 LG와 LG상사 주식을 99억7천672만원어치 보유하고 있으며 구분부 LG그룹 회장의 둘째딸인 연수(10)양 역시 LG와 LG상사 주식 보유 규모가 21억1천933만원으로 집계됐다.

GS그룹 역시 허창수 회장의 친인척인 원홍(15)씨의 GS 주식 보유 규모가 107억3천856억원에 달하며 허태수 GS홈쇼핑 대표이사의 외동딸인 정현(6)양은 GS 주식 19만5천916주를 보유, 현재 평가액이 60억482만원에 이른다.

또 10대그룹 계열사들 뿐 아니라 증권기업을 통해서도 미성년자 주식 부호들이 적지 않다. /연합뉴스

자동차업 원청·하청 근로자 임금격차 제조업 중 가장 커

국내 6대 제조업 중 자동차업이 원청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간의 임금 및 근로시간 격차가 가장 크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국회 환노위 안홍준(한나라당) 의원은 28일 노동부로부터 받은 '6대 제조업 근로조건 점검결과'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업 67개 하청 사업장 근로자의 연평균 기본급은 1천451만 원으로 9개 원청 사업장 평균인 2천883만원의 50.3%에 그쳤다고 밝혔다.

반면 월 근로시간은 하청 사업장 근로자들이 225시간으로, 원청 사업장 근로자가 일하는 210시간의 107.1%였다.

이에 비해 조선업종은 원청과 하청 사업장의 임금격차가 가장 작았다. 115개 하청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 기본급이 1천907만원으로, 9개 원청 사업장 평균인 2천464만원의 77.4%였다.

월 근로시간도 하청 근로자가 273시간으로, 원청 근로자가 일하는 267시간의 102.2%였다.

원청 대비 하청 사업장의 임금 격차율은 화학업종 51.7%, 기계금속 51.5%로 비교적 큰 격차를 보였으나, 철강과 전자전기는 각각 65.0%, 65.2%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연합뉴스

"세계서 번 돈 절반이상 일본에 줬다"

LG경제연구원 지적 대일 무역적자 심각

우리나라는 지난 3년간 세계시장에서 번 돈의 절반이상을 일본에 바친 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에는 원·엔 환율 하락으로 대일 상품무역 뿐 아니라 여행 등 서비스부문 수지까지 적자를 내 대일 경상수지 적자가 고착화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LG경제연구원은 28일 '원·엔 환율 하락, 일류(日流) 확산시킨다'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가 최근 3년간 세계시장에서 기록한 무역흑

자의 절반 이상을 대일 무역적자가 갚아먹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에서 번 돈의 절반 이상을 일본에 바친 셈"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은 따르면 지난 3년간 대일 무역수지 적자는 2004년 244억달러, 2005년 244억달러, 2006년 253억달러였던 반면, 세계무역흑자는 2004년 294억 달러, 2005년 232억달러, 2006년 164억달러를 기록했다.

연구원은 "세계시장에서 열심히 벌어들인 알맹이를 소재, 부품, 기술을 들여온 데 대한 몫으로 고스란히 일본에 넘겨야 하는 '재주는 한국이 넘고 돈은 일본이 버는 구조'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로도복권 (제217회)

당첨번호	2등번호 수	당첨자 수
16 20 27 33 35 39	38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1,611,246,172	7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64,820,249	29
3	5개 숫자 일치 1,558,696	1,206
4	4개 숫자 일치 58,601	64,156
5	3개 숫자 일치 5,000	1,066,490

팝콘복권 (제40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10억	7조 370627
		7조 370626
2	5억	7조 370628
3	1천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4	1백만	각조 88055
5	1만	각조 693
		각조 32
6	2천	각조 91
		각조 2
7	1천	각조 5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신일가스	신규영업 및 영업관리 사원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01/31	062-951-0011
영창중공업	기업법무 담당 경력자 모집	대출/경력2년	회사내규	01/31	061-362-3800
한글과 컴퓨터	2007년 정규직 컴퓨터 방문지도조사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31	062-366-7220
㈜캡콤아시아	2007년 상반기 정규직 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31	070-7018-0077
㈜세진텔레콤	간편제작 및 시공 직원 모집	고졸/경력2년	회사내규	01/31	062-522-8888
대광	경리회계/일반사무 여직원 모집	고졸/경력2년	회사내규	01/31	062-375-6059
GM대우자동차(남부영업소)	[전차중 판매전시점]남부지역 정규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02	062-653-0051
네오시스템	기획업무/무역회계 사원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02	062-236-2168
신원전자정밀	생산직 도장(스프레이),사출 2교대 사원모집	고졸/경력1년	1600~1800	02/02	062-944-8471
자강산업	지체(원료투입)부 경력 사원모집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02/02	062-956-6142
조선무역	[솔루션] 전남지역 영업사원 모집	초대졸/경력2년	1800~2000	02/05	062-653-6204
대경정보통신	네트워크 공무 부분 채용 공고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2/07	062-716-0121
정원교육문화	[정원교육문화]친절한 정원 선생님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2/09	062-365-2400
순천침담대학	[순천침담대학] 광주기숙사 사강 채용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02/09	061-740-7134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